

李 대세론 입증…본선준비 체제 전환

계엄·탄핵에 “뭉치자”…경쟁과열 4년 전도 교훈
네거티브 삼가…중도층 겨냥 정책 홍보 등에 속도

선택!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내 지역순회 경선 반환점을 지나면서 파죽의 2연승으로 대세를 형성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충청권에 이어 20일 영남권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누적 득표율이 89.56%에 달하는 강력한 득표력을 보여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후보의 독주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이번 주말인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이 주말과 휴일이 경선의 피날레가 될 전망이다.
27일까지 합산 득표율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 간에 결선 투표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후보가 압도적 선두를 형성하면서 추격자 입장인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과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 경선에서 이 후보와 차별성 있는 정책 등을 앞세워 역전을 노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지난 19일 충청권 경선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득표율 7.54%로 2위, 김경수 후보는 득표율 4.31%로 3위를 했다.
20일 영남권 경선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득표율 5.93%, 김동연 후보는 3.26% 득표율을 기록했다.
충청권에서는 2·3위 후보의 득표율 합이 11%를 넘었지만, 영남권에서는 두 후보의 득표율 합이 10%에 못 미쳤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 후보의 압도적 독주체제가 이번 경선 시작 전부터 예고됐던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경선을 거쳤고, 이후 2년 8개월 동안 당 대표를 맡아 당을 이끌면서 친명(친이재명) 성향 당원들이 대거 늘어난 반면 비명(비이재명) 계의 세는 위축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을 겪으면서 당내에서는 ‘이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또 4년 전 대선 경선에서 후보 간 경쟁이 과열돼 결국 대선에서 패배했던 상황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참담한 결과에 이른 것이 되려 큰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이를 되돌리려는 세력이 나타나 우리도 그냥 물러설 수는 없다는 분위기”이라며 “들춰 보면 내부의 불만이 가뭄 후보의 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흡한 점도 있겠지만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나 작은 것을 따지기보다 대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이 앞으로 이어진다면

면 역대 최고의 당심 결집이 나타날 전망이다.
지난 15대(1997년) 대선을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 경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올린 득표율 78.04%였다.

16대 대선(2003년)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 경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선 득표율은 72.2%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올린 득표율은 57.0%였고,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올린 득표율은 50.29%였다.
이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발언’ 등은 철저히 삼가는 모습이다. 남은 경선 기간 안정적인 경선 관리에 신경 쓰는 동시에, 정책 관련 일정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비롯한 투자업계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가짜뉴스 검색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21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에 게재된 글과 뉴스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국힘, 2차 경선에 오를 ‘4인’은…나·안 ‘컷오프’ 관심

5개 기관서 조사…오늘 발표

국민의힘이 21일부터 이틀간 대선 후보 4강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 절차에 돌입했다.
후보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 조사를 통해 22일 2차 경선 진출자를 결정

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여론 조사와 관련해 총 5개 기관에서 이날부터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000명의 일반국민 표본조사를 시행한 뒤 평균치를 집계해 결정한다. 결과는 22일

오후 7시 발표되며, 순위와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이날 초 확정된 경선 틀에 따르면 1차 경선은 국민여론조사 100%로 8명의 후보 중 4명을 선출한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안철수 후보가 4~5위권을 형성하고 있어 누가 최종 컷오프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광주시, 외국인주민 의료 접근성 높인다

외국인근로자·유학생에 의료 통역 서비스 등 지원

광주시가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와 의료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약제비를 비롯한 운영경비와 의료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와 광주고려인진료소 등 외국인주민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2곳이 있다.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한의학과 등으로 전문의료인과 보건의료분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 외국인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대학교 방문 진료를 실시하는 단체인 브릿지의료인회도 있

다.
광주시는 이들 비영리법인·단체 3곳에 시비 8500만원을 투입해 약제비 등 운영 경비와 의료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미취득 및 상설, 의사소통과 경제적 어려움 등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고려인 등),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1차 진료, 건강상담, 물리치료, 투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1차 진료 후 정밀검사 등 필요한 경우 의원·병원으로 환자를 연계해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어가 서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주민 환자의 진료를 돕기 위한 의료 전문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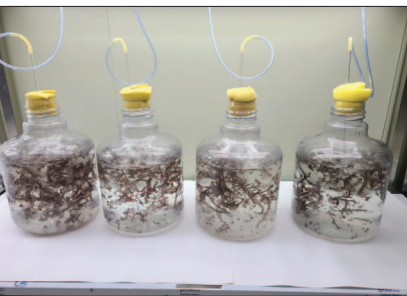
경제적·언어적·시간적 사정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외국인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지역사회 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들이 어려움을 없이 제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이주민건강센터(062-956-3353)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광주고려인진료소(062-961-1925)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브릿지의료인회(070-8226-3078)는 올해 전남대·조선대 등에서 방문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도, 멸종위기 옛날 ‘참김’ 신제품 개발 집중

맛·품질 뛰어난 우리나라 고유종…2028년까지 복원 기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토종 참김의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수년간의 관찰과 조사를 통해 2022년부터 종자를 확보하고, 2024년 종자배양 기술을 확립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 양식 및 선발육종에 나선다. 오는 2028년까지 양식 대상종으로의 복원 및 신제품 개발이 기대된다.
토종 참김은 조선 인조시대(1640년

계) 광양군(현 광양시) 태인도에서 최초로 양식된 품종이다. 인조 임금의 수라상에 진상되면서 참김의 고소하고 바삭한 맛을 인정받았다. 당시 김 씨가 양식을 해 ‘김’이라 불리게 됐다고 전해진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현재 참김 염체에서 과포자(씨앗)를 발출시켜 패각사상체 및 유리사상체로의 분리 배양에 성공했고, 종자배양 조건 및 기술도 확보했다.
올 가을부터 토종 참김 시험양식을 통



해 양식가능성, 품질 및 내병성, 수익성 등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선발육종을 통한 신제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향후 김 양식 어가에 품종을 보급해 400년 전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역사적 스토리를 간직한 토종 참김의 맛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바로연 바론만남 바른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훈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